
Issue Briefing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40922 vol.136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 현주소 그리고 지원방향

연구진

박신규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가족정책팀 부연구위원)

조아영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 현주소, 그리고 지원방향

1.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현황	4
1) 전국 및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 현황	4
2) 다문화가족 청소년관련 지원정책 현황	5
2.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관한 조사분석 개요	8
1)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개요	8
2) 만9~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9
3. 주요 조사 결과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10
1) 가정생활	10
2) 학교 및 사회생활	11
3) 생활 및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정책 요구도	15
4) 외국 성장 청소년의 교육경험 및 국적취득 계획	16
4.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지원방향	17
1) 정책적 시사점	17
2) 향후 지원방향	18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4년 09월 22일 vol.136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

안전행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연령별로 분석한 자료¹⁾에 따르면 2013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청소년 현황은 만6세 미만 6,244명이고, 만7~18세까지가 3,7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의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에 의하면 2013년 현재 3,456명이 재학 중이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2.2%, 중학교 1.0%, 고등학교 0.5%로 각각 나타나, 전국에서는 전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9~24세의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이슈브리핑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전라북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현주소와 지원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청소년 관련 주요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상생활에서 고민이 생길 경우 상담대상은 또래 친구(39.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스스로 해결(1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 형성이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관계만족도를 넘어 부모-자녀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형성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44.1%가 외국 부모의 모국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만, 외국계 부모의 언어는 주관적 평가에 있어서 5점 만점(아주 잘함)에 2점으로 나타나 언어적 능력과 관심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당시 조사 대상자의 91.1%가 재학 중으로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28.9%가 응답하였으며 어려움의 내용으로는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전국 8.7% : 전북 6.4%)이나 사회적 차별(전국 13.8% : 전북 8.4%)에 대한 경험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지만, 언어폭력과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한편,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40.9%가 지원서비스 수혜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는 학습지원(22.2%)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원 필요도를 4점 만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에 대한 요구(3.37점)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내 방과후 교실에 대한 인지율(85.4%)과 이용경험(64.1%)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족에 대해 통합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은 각각 65.3%와 19.8%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가정과 학교생활이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지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습지원 및 언어교육 중심의 지원 서비스와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그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가족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을 하는 일반 지역 청소년 정책으로 통합지원 방향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그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강점을 강화하여 지역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지원방향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으로
통합
지원**

- 일반청소년 지원 안에 서비스 중심 지원
- 선별적 지원은 낙인효과 없는 지원방식 채택

**역량 및
심리정서
적응지원
강화**

-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진로 및 취업지원)
- 청소년기관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 모색

**강점
강화로
글로벌
인재육성**

-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환경 조성 사업 강화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부모 모국 방문을 글로벌 체험 학습의 장으로 부각

1) 안전행정부, 각 년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청소년²⁾의 현황

1) 전국 및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 현황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현황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주민 통계와 교육부를 통한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세부 통계로 구분되고 있음
- 안전행정부의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3년 현재 191,328명으로 분포되어 4.3배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는 3,275명에서 9,989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13년 현재 만6세 미만(62.5%)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만7~12세(22.6%), 만13~18세(14.9%)로 나타남

〈표 1〉 전국 및 전북 다문화가족 자녀 분포(2007~2013년)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자료 : 안전행정부, 각 년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표 2〉 전북 다문화가족의 연령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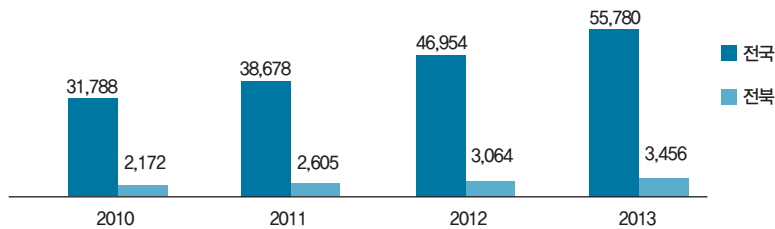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만7~12세	만13~18세
	자녀수	증가수	증가율	만0~2세	만3~6세	합계		
2009	5,474	1,191	27.8	1,884	1,485	3,369(61.5)	1,476	629
2010	5,849	375	6.9	2,420	1,478	3,898(66.6)	1,366	585
2011	7,755	1,906	32.6	2,779	2,169	4,948(63.8)	1,911	896
2012	8,766	1,011	13.0	2,874	2,659	5,533(63.1)	2,064	1,169
2013	9,989	1,223	14.0	2,986	3,258	6,244(62.5)	2,255	1,490

자료 : 안전행정부, 각 년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교육부의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³⁾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55,780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0.86%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북의 경우는 2013년 현재 3,456명⁴⁾이 재학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조사됨. 초등학교(2.2%), 중학교(1.0%), 고등학교(0.5%)로 전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 명, %)



〈그림 1〉 교육부의 연도별 다문화 가정 학생현황

2) 다문화 청소년의 범주는 가장 단순화하면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이지만 형태는 아주 다양함.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국민으로써의 청소년 뿐 아니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배경의 청소년도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봄. 그러나 본 이슈가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근거하고 있기에 교육부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실태 분석은 제외되었음

3)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과 외국인가정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로 개념 정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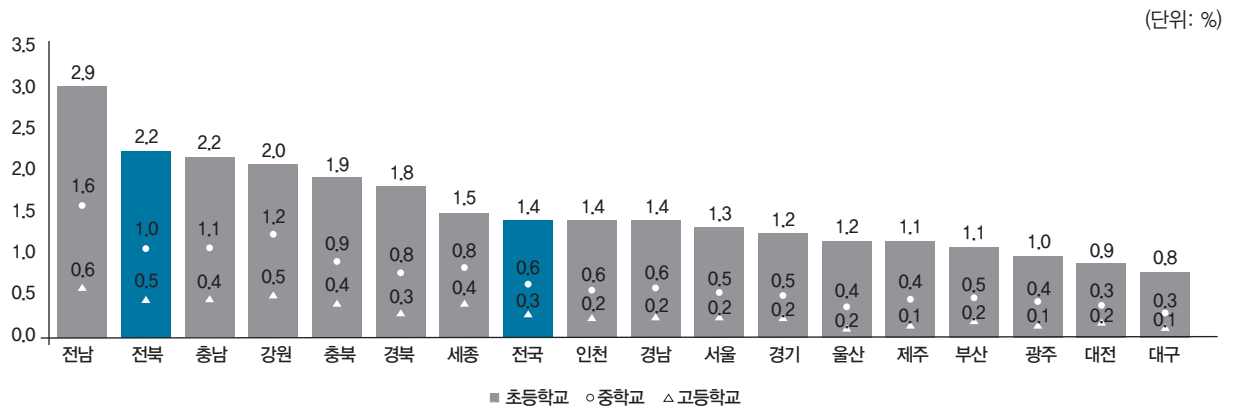
4)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와 전북 교육청 통계 사이에 56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학교의 이종표기에 따른 영향을 보임. 따라서 아래 전국 학교급별 비율은 전국 통계 DB를 근거로 하고 있음

〈표 3〉 전북 다문화가정의 학교급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계	2,363	747	346	3,456
국내출생	2,149	664	292	3,105
중도입국	60	32	12	104
외국인가정	154	51	42	247

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 내부 자료, 2013년



주 :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정렬(초등학교 기준)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그림 2〉 학교급별 지역별 다문화학생 수 비율 (2013)

2)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현황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데,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부처별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예산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2~2014년 예산안의 증감비율로 살펴보면 대부분 감소하였거나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예산의 확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 지원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중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처	회계	사업명	예산		2014 예산안(B) 2014 예산안(B)	증감	
			2012	2013(A)		금액 (B-A)	비율 (B-A)/A
여성 가족부	여성발전기금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1,808	58,370	85,600	230	0.4
	일반회계	다문화가족 대국민 인식개선	300	-	-	-	-
	청소년기금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지원 프로그램	1,397	1,667	1,667	0	0
교육부	복권기금	중앙다문화교육센터운영	600	540	600	20	3.7
	일반회계	다문화대학생멘토링 지원	5,000	7,000	13,500	65,000	92.8
	지방비, 특별교부금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12,500	8,000	10,000	2,000	25
법무부	일반회계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5,290	5,252	5,224	-28	-0.5
문화 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콘텐츠 개발	500	400	200	-200	-50
		다문화교육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33	33	33	0	0
		생방향 문화다양성프로그램 확대	50	40	20	-20	-50
		다문화가정 미술관 소품	47	47	60	13	22
		다문화꾸러미 개발 운영	286	260	258	-2	-0.8

자료 : 한길수(2013), 2014년도 정부성과계획평가(국회예산처)

- 한편,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수립(2013~2017년)에 따라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관련되는 과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영역과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제고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음

〈표 5〉 제 2 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관련 계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건강정보문해력 향상	다문화가족	- 기본적인 건강정보에 대한 문해력 향상 방안 실시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 언어발달 진단 → 언어교육 → 진단평가를 통해 언어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 이중언어 강사 양성 체계화(전담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심화과정 신설) - 기초 모국어 교재 보급 - 다문화 이해교육 지도서 개발-보급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언어영재교실사업	여성가족부 교육부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학부모 설명회,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학부모모임 활성화 - 글로벌맘스 운영 -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하기 자료 제작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한국어능력 향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다문화가족 자녀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인터넷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 한국어교육과정(KSL) 운영 - KSL 표준교재 및 진단도구 개발 - KSL 방송콘텐츠 개발 - KSL 연구학교 운영 - 특별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교차 학습 - 방과후학교 활용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다문화가족자녀	-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학교 전국운영	다문화 청소년	-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4개교) - 예비학교 확대(50개교)	교육부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한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 Rainbow School확대	여성가족부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자녀	- 학부모교육서비스 - 기존의 글로벌선도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예비학교를 글로벌선도학교(연구형, 예비형, 거점형, 집중형)으로 통합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 구축 - 교사, 또래,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 및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 교육부
	진로-진학지도강화	다문화가족자녀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학 진학 기회 확대(사회적 배경대상자 전형에 다문화학생 포함, 재직자 특별전형에 다문화학생 선발 권장)	교육부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다문화가족 자녀	- 전담 코디네이터 및 입학절차 안내 자료('우리아이학교보내기')배치 -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 다문화 친화적 정규학교 배정 -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시도교육청 다문화전담직원 역량강화	교육부 법무부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다문화가족자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이주배경 청소년	-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되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	여성가족부

-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한국어, 이중언어 등 언어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소극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역량 증진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과 중고생 대상의 정책이 미비함

2.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관한 조사분석 개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전북 원자료 분석-

1)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요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2012년 조사는 표본조사로 전국에서 선정된 15,341가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표 6〉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요

조사명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79호)
조사대상	-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 표본 -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 배우자 총 13,859명(여성 2,278명, 남성 11,581명) - 만 9~24세 자녀 총 4,775명(여성 2,271명, 남성 2,504명)
조사내용	- 가구구성표 : 가구 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균소득 등 10개 항목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112개 항목 - 배우자 :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 만 9~24세 자녀 : 한국어 사용, 학교폭력 경험 등 71개 항목
조사방법	- 통계청 전문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병행 - 소요시간 : 가구별 1~1시간 30분
조사기간	- 준비조사 2012. 7. 6~7. 9, 본조사 2012. 7. 10~ 7. 31
조사기관	- 통계청(통계대행과)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확대·변화되었음
-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 출생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와 같은 2009년 실태조사 대상과 함께 결혼이민자, 귀화, 인지에 의한 한국인과 귀화, 인지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1인 미혼 귀화 한국인, 결혼이민자 등과 이혼사별한 출생 한국인과 같이 법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원 및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실태 파악이 필요한 집단 등이 2012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음.

〈그림 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조사 대상자와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음. 따라서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라북도의 만9~24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함

〈표 7〉 전라북도 거주 다문화가족 조사 대상 및 조사내용⁵⁾

(단위 :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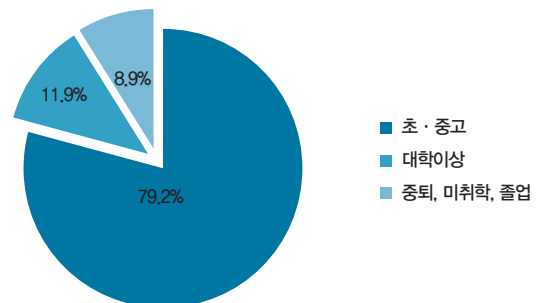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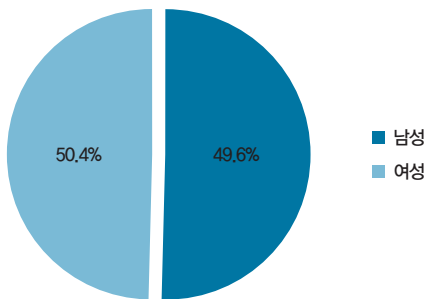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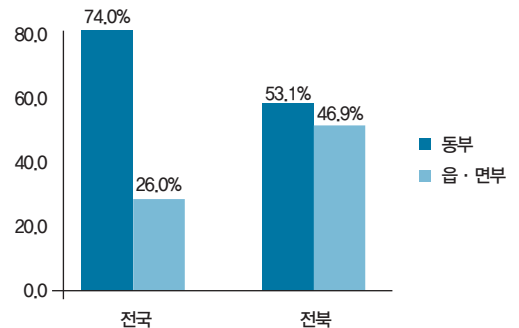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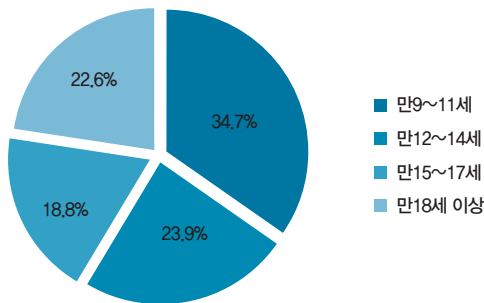
구분	가구	결혼이민·귀화자	배우자	자녀
조사내용	가구 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균소득 등 10개 항목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112개 항목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한국어 사용, 학교폭력 경험 등 71개 항목
전국	266,547	283,224	234,505	66,536
전북	9,617(3.6%)	10,624(3.8%)	9,114(3.9%)	3,321(5.0%)

2) 만9~24세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나타난 만9~24세 나타난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 특성

- 전북 청소년 자녀의 행정적 분포는 전국에서 5%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보면 만9~11세가 (34.7%), 만12~14세 (23.9%), 만18세 이상이 (22.6%)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자녀의 성별과 거주지역을 보면 여성(50.4%)이 남성(49.6%)보다 거주지역 동부(53.1%)가 읍·면부(46.9%)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남
- 학교 재학상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 재학이 79.2%로 나타났고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비율이 11.9%, 중퇴, 미취학, 졸업이 8.9%로 전체 조사대상의 91.1%가 조사시점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빈도	11,787	2,286	1,990	4,181	1,429	1,337	1,523	19,800	2,736	1,881	3,163	3,321	3,025	3,074	4,512	493	66,536
비율	(17.7)	(3.4)	(3.0)	(6.3)	(2.1)	(2.0)	(2.3)	(29.8)	(4.1)	(2.8)	(4.8)	(5.0)	(4.5)	(4.6)	(6.8)	(0.7)	(100.0)



5)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15,341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전북의 경우는 728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실제 조사가구와 가구원들에게 가중치를 적용한 가구와 각각 가구원 대상자의 수와 비율이 나타남

3. 주요 조사결과

-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1) 가정생활

■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고 외국계 부모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44.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우선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평균이 4.09점(100점 만점에 81.8점)으로 전국 평균이 4.01점보다 높았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도 평균 4.31점(100점 만점에 86.2점)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4.23점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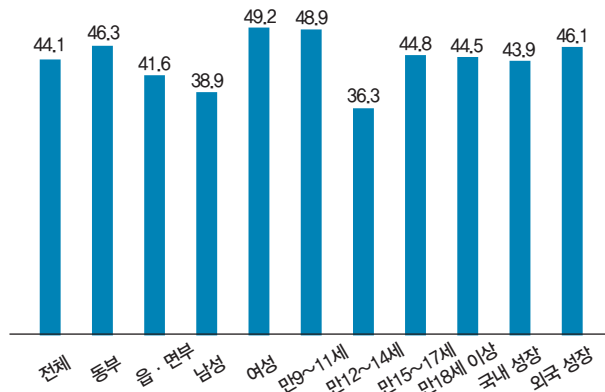
〈표 8〉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지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평균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전국	43.9	23.2	26.1	3.4	3.3	100.0	4.01
	전북	47.7	21.6	24.9	3.7	2.1	100.0	4.09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전국	52.7	23.0	20.3	2.8	1.2	100.0	4.23
	전북	55.3	23.4	19.2	1.1	1.0	100.0	4.31

- 외국계 부모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체적으로 44.1%(관심이 있음과 매우 관심 있음)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적으로 동부에 살고 여성이면서 연령이 어리고 외국 성장인 경우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 외국계 부모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음

■ 주관적 한국어 능력은 5점 만점에 4.67점으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한국어능력은 평균 4.67점으로 전국평균(4.54점)보다 높았으며, 말하기 영역(4.71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쓰기 영역은 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평가를 매김

■ 외국계 부모 국가 언어능력은 5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하여 잘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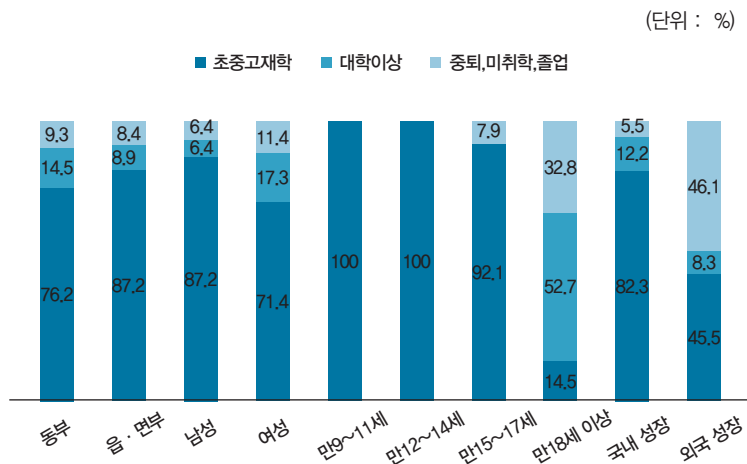
- 외국계 부모 국가의 언어능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평가를 알아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못하는 편이다인 2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외국계 부모나라의 언어를 잘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2) 학교 및 사회생활

(1) 학교재학 상태 및 학업중단 사유

■ 전체 조사 대상의 91.1%가 조사시점 당시 학교 재학상태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연령대별 재학 비율을 보면 만9~14세는 100%, 만15~17세는 92.1% 재학, 7.9%가 학교에 다니지 않음. 만18세 이상은 초중고 재학이 14.5%, 대학이상 재학이 52.7%, 32.8%가 학교에 다니지 않음
 - 만18세 이상 자녀들 중에서 약 14.5%가 중등교육을 완료하지 못해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님. 특히 외국 성장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46.1%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음



〈그림 5〉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상태

■ 학업중단 사유는 전국 조사에서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문제이지만, 전북은 어려운 학교 공부로 응답함

- 전국 조사에서 학업 중단의 사유가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 가정형편의 어려움,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의 순이었다면, 전북의 경우 학업중단에 대한 응답사례도 남학생만 30사례로 적고, 그 이유를 어려운 학교 공부 및 기타로 응답함

(2) 학교 공부의 어려움과 사교육 경험

■ 학교 공부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 어려움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으로 답함

- 조사대상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28.9%(전국은 25.3%)의 학생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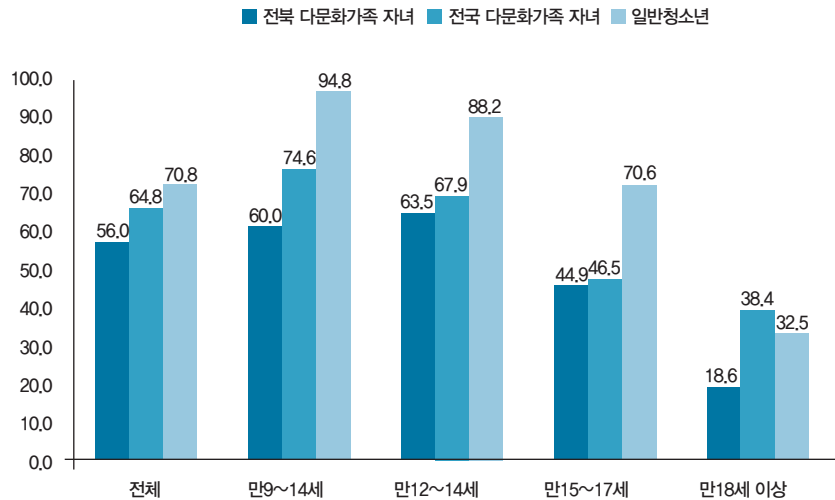
어려움의 내용은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8.0%),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움(6.0%),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움(4.8%)의 순이었음

■ 사교육 경험은 56.1%로 전국(64.8%)보다 낮고 일반 청소년(70.8%)보다도 참여율이 낮음

○ 지난 1년간 사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험있다가 56.1%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동부(動部),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만12~14세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고 국내 성장보다는 외국 성장 자녀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았음

- 사교육 경험을 전국 및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보면 전북은 전체적으로 56.1%로 전국(64.8%)보다 낮은 참여율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청소년(70.8%)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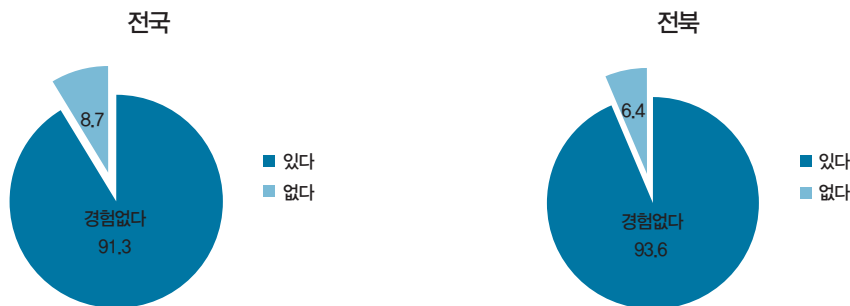


〈그림 6〉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교육 경험

(3) 학교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경험

■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6.4%였고, 피해경험 유형은 협박욕설이 7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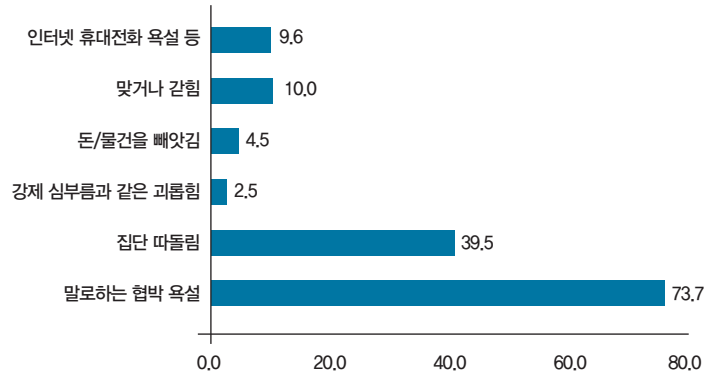
○ 학교 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4%였고 지역별로는 읍·면부에서 성별로는 남학생이 연령별로는 만9~11세 때, 그리고 외국 성장 자녀들이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유형은 협박과 욕설이 73.7%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맞거나 간힘, 인터넷, 휴대전화 욕설 등의 순서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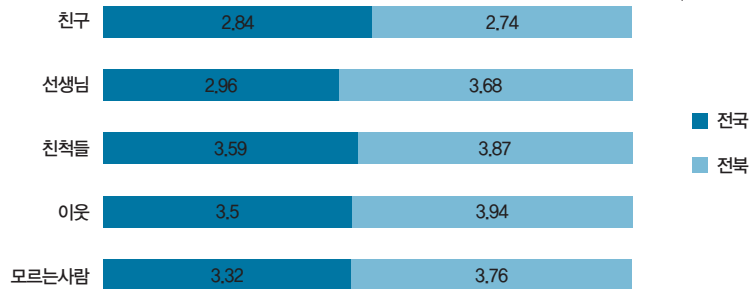
〈그림 8〉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 학교폭력 대응 방법으로는 전체적으로 선생님께 말씀드리(45.8%)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참았음(30.3%)과 친구들과 상의(17.3%) 등의 순서로 응답함

■ 응답자의 8.4%가 차별을 경험, 차별한 사람은 친구, 선생님, 모르는 사람 등의 순서였음

-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13.8%이며, 86.2%는 없다고 응답한 반면,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로 전국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차별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가 4점으로 나타나는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였을 때, 차별하는 사람은 친구들의 차별이 가장 심했고, 이어서 선생님, 모르는 사람, 친척들, 이웃의 순으로 조사됨

(단위 : 점) * 4점이 전혀 차별하지 않음



〈그림 9〉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차별하는 사람

(4) 고민의 종류 및 고민상담 대상

- 고민의 종류는 공부(39.2%), 직업(15.6%), 고민없음(14.6%), 경제적어려움(7.5%) 순이었음

- 만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가장 큰 것부터 우선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큰 고민은 공부(39.2%)로 나타남. 다음으로 직업, 경제적 어려움, 외모 순이었음

〈표 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고민 종류(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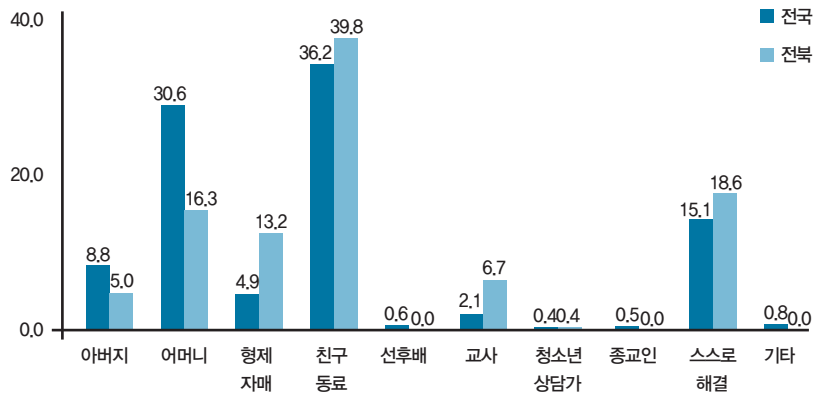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고민 없다	외모	신체 정신 건강	가정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응답 부족	공부	직업	친구	이성 교제	인터넷 중독	기타	전체	
전체	14.6	4.5	5.2	0.4	7.5	2.5	39.2	15.6	3.7	3.4	0.8	2.6	100.0	
거주지역	동부	12.0	4.6	7.6	0.8	9.2	3.0	31.3	20.8	5.4	1.4	1.5	2.4	100.0
	읍·면부	17.8	4.4	2.4		5.4	1.9	48.7	9.3	1.7	5.7		2.8	100.0
성별	남성	21.1	5.5	8.3	0.9	8.4	4.7	38.9	4.4	3.3	1.7		2.8	100.0
	여성	9.2	3.7	2.6		6.8	.6	39.4	25.0	4.0	4.7	1.5	2.4	100.0
나이	만12~14세	16.8	0.8	3.8		10.7	3.0	57.8	2.1	5.0				100.0
	만15~17세	12.1		10.3	1.3	4.9	2.6	44.8	10.7	7.0		6.4	100.0	
	만18세 이상	15.2	10.9	2.0		7.4	2.0	21.3	29.3		8.5	2.1	1.2	100.0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13.7	3.7	5.9	0.5	8.0	2.8	43.0	13.7	2.4	2.9	0.9	2.4	100.0
	외국 성장	21.5	10.1			3.6		11.3	30.0	12.9	6.6		4.0	100.0

■ 고민 상담 대상은 친구를 통해, 혹은 스스로 해결하는 특징을 보임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있어서 앞서 본 고민에 대한 상담을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39.8%)를 선택했고, 다음 순위로 전국은 어머니(30.6%)로 삼은 반면 전북은 스스로 해결(18.6%)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음

(단위: %)



〈그림 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

(5) 희망 교육 수준 및 모국 유학 의사

■ 희망교육은 54.3%가 4년제 대학의 학력과 28.4%가 외국계 부모의 모국 유학의사를 보임

- 전북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희망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54.3%)의 학력을 원하고 있으며, 4년제 미만의 대학 25.7%, 고등학교 졸업 7.5%로 나타남

- 향후 외국계 부모 모국으로의 유학 의사에 28.4%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지역별로 읍·면부와 여성이 유학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유학 의사가 있고 국내 성장보다는 외국 성장 자녀들이 유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3) 생활 및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지원 요구도

(1) 지원서비스 수혜경험 및 지원요구도

■ 지원서비스 수혜경험은 40.9%이며, 가장 많이 받은 지원서비스는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청소년 전체의 40.9%가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는 학습지원(22.2%)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8.7%), 외국계 부모 국가 문화 이해 교육(7.0%), 학습-친구-가족-이성 관련 상담(6.7%), 한국어 교육(5.7%), 한국 사회적응 교육(5.5%)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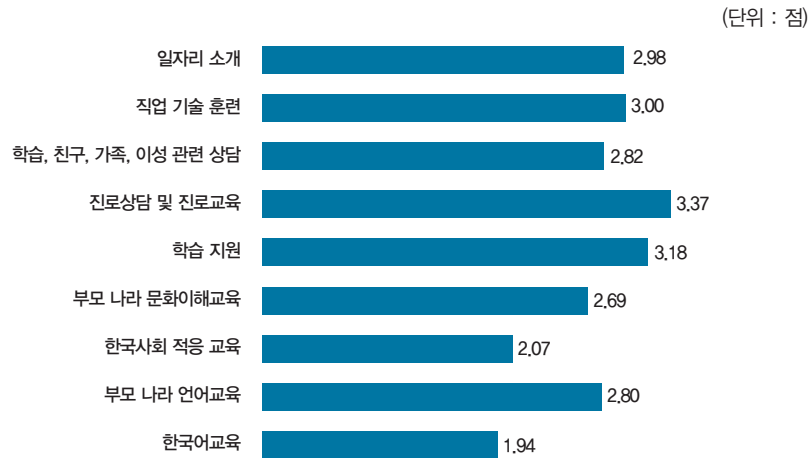
〈표 10〉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

(단위 : %, 명)

구분	한국어 교육	외국계 부모국가 언어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외국계 부모국가 문화이해 교육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학습/친구 가족/이성 관련상담	직업 기술 훈련	일자리 소개	받은 경험 없음	
전체	5.7 (188)	4.9 (162)	5.5 (182)	7.0 (232)	22.2 (737)	8.7 (289)	6.7 (221)	3.4 (114)	3.6 (121)	59.1 (1,962)	
거주 지역	동부	5.0	1.2	5.6	9.3	16.8	10.7	11.0	4.9	5.3	59.9
	읍·면부	6.4	9.0	5.3	4.4	28.3	6.5	1.8	1.7	1.7	58.2
성별	남성	6.2	3.0	5.8	4.4	22.6	10.3	4.2	3.8	3.8	58.2
	여성	5.1	6.8	5.1	9.5	21.8	7.2	9.1	3.1	3.5	59.9
나이	만9~11세	8.6	7.3	5.3	4.3	35.9	4.0	1.0		0.6	55.2
	만12~14세	3.4	6.3	11.4	3.3	23.2	15.9	3.0	1.3	0.5	56.7
	만15~17세	6.0	3.4	4.7		22.2	9.1	13.9	11.6	11.6	56.5
	만18세 이상	3.2	0.8		20.9		7.9	13.4	4.3	5.0	69.7
외국 성장 여부	국내 성장	3.5	4.7	5.6	7.3	23.1	9.3	7.1	3.7	4.0	58.9
	외국 성장	30.0	6.6	3.6	2.9	12.2	2.2	2.2			61.4

■ 지원서비스 요구도에서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원 필요도를 4점 만점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에 대한 요구(3.37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3.18점), 직업 기술 훈련(3.00점), 일자리 소개(2.98점), 학습-친구-가족-이성 관련 상담(2.82점), 외국계 부모 나라의 언어 교육(2.80점)의 순이었음



〈그림 12〉 지원서비스 요구도

(2)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지원시설 인지율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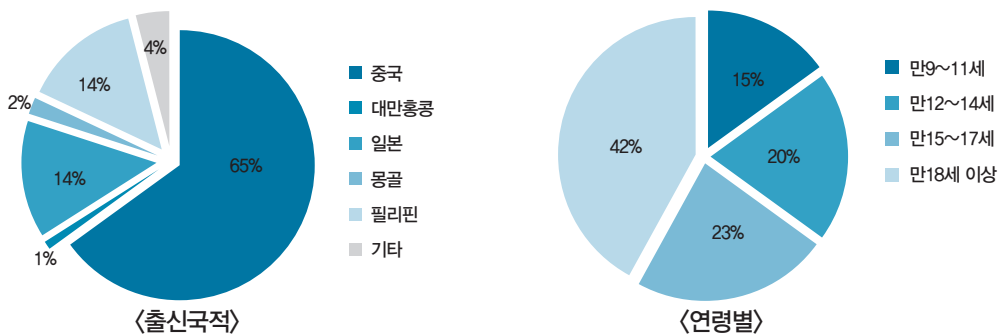
■ 학교내 방과후 교실에 대한 인지율이 85.4%로 가장 높고 이용경험도 64.1%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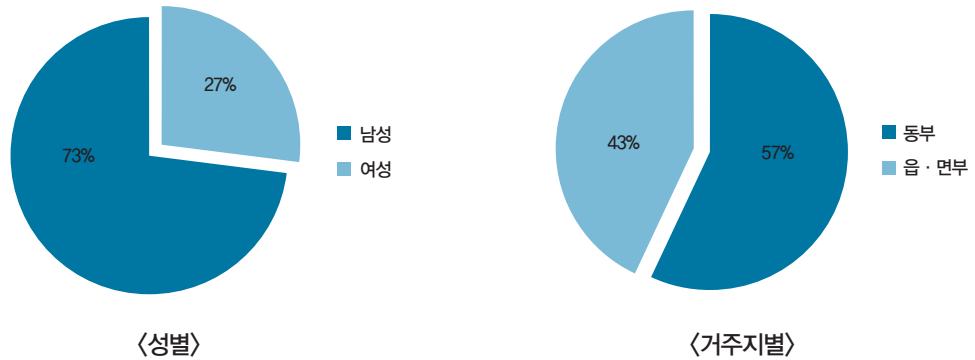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시설별로 차이를 보임

-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74.7%, 이용률은 2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65.3%, 이용률은 19.8%,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율은 50.9%, 이용률은 16.8%임
-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4.7%에 달하지만 실제 이용한 경험이 7%에 불과함
- 고용센터의 인지율은 34.2%이며, 이용율은 2.2%로 나타남

4) 외국 성장 청소년의 교육 경험 및 국적취득 계획

■ 외국 성장 청소년의 출신국적은 중국(65.3%)이 가장 많고, 성별로는 여성(73.4%)이 연령은 18세 이상(4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 274명 중 본인의 출신 국적은 중국이 65.3%(전국은 72.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필리핀(14.2%), 일본(13.6%)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이 73.4%, 남성은 26.6%이며 연령별로는 만18세 이상(42.0%)이 다수로 나타났고, 거주지별로는 동부(57.3%), 읍·면부(42.7%)로 나타남

■ 외국에서 재학한 학교급은 중학교 졸업 및 재학이 37.9%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 외국에서 재학한 학교급을 보면 중학교 졸업 및 재학이 37.9%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및 재학(32.1%), 고등학교 졸업(19.9%), 고등학교 재학(10.1%)이었음

■ 한국국적보유는 72.4%로 나타나 전국 조사의 52.2%보다 높으며 취득계획도 66.0%로 나타남

- 외국 성장 자녀 중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는 72.4%로 나타나 전국 조사에서의 52.2%보다는 높게 나타남. 한국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자녀는 66.0%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국적 취득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별로는 읍·면부 연령별로는 만12~14세, 만18세 이상은 100% 취득할 계획을 가짐

4.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안

1) 정책적 시사점

■ 가정과 학교생활이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식이 필요함

- 본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높지만 학교 공부의 어려움과 이에 대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고민의 상담대상으로 친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전국에서는 엄마가 상담대상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한 반면 전북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아 부모 자녀관계의 소원함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래 친구들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됨

- 전북의 경우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피해와 차별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별을 하는 대상이 주로 또래 친구였고 언어적 폭력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

■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필요

-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차별 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로 전국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남. 청소년을 차별하는 사람은 친구들의 차별이 가장 심했고 선생님, 모르는 사람, 친척들, 이웃의 순서로 조사되고 있기에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학습지원 및 언어교육과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만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원 필요도에서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 직업 기술 훈련 등의 순이었기에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다문화가족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어서 인지도와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다문화가족의 통합지원센터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할 인프라로서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서적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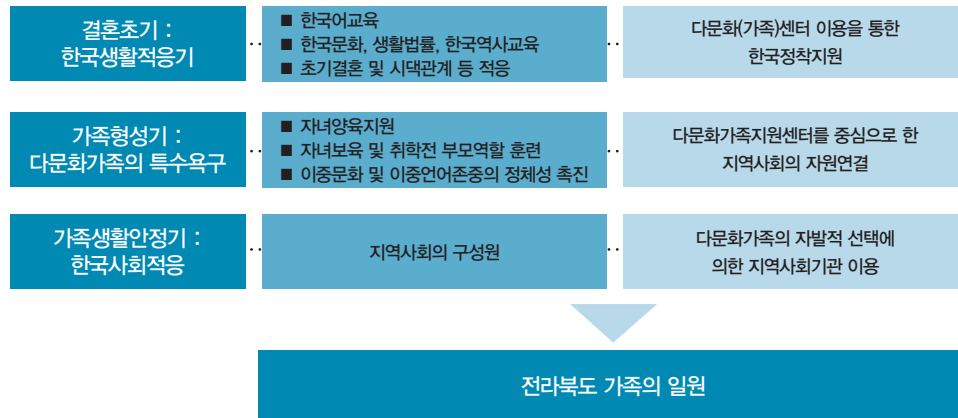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방식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청소년 내에서도 부모의 출신국, 교육수준, 국내 성장, 외국성장 등에 따라 다양한 심리, 사회문화적 발달 특성이 다양하므로 각 집단의 배경 특성에 맞는 요구를 반영할 필요 있음
 - 아동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로 발달해 가고 있으나 기존 사업이 아동 초기 대상 사업에 집중되어있기에 이를 반영한 사업의 개발과 특히 외국성장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교육의 강화,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2) 향후 정책 지원 방향

■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 지역 청소년 정책으로 통합지원

- "다문화청소년"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되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고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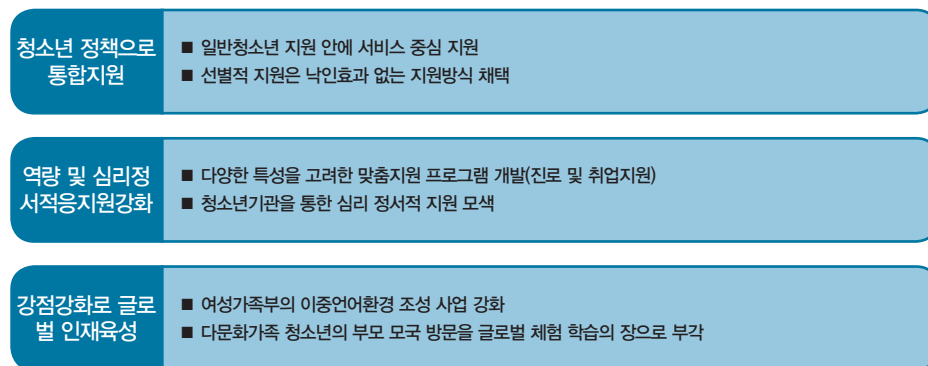
〈그림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기관과의 연계

■ 역량강화와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 다문화가족 청소년 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이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 사춘기 이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적응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등 이 요구됨

■ 강점을 강화해 지역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지원방향 수립

-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지닌 이중언어교육 환경과 외국계 부모의 모국 방문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지역사회의 글로벌 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민선 6기 시책으로 나온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청소년 자녀의 글로벌 체험 학습의 장으로 기획해 보도록 함



〈그림 13〉 다문화가족 청소년 정책의 향후 지원방향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